

몸 사리지 않는 코믹 연기로 “대세케미 뽀뽀”

SBS 월화극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신혜선·양세종 등 출연...23일 첫 방영 조수원 PD “마냥 가볍지만은 않은 드라마”

2일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새 월화극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조수원 PD 기자회견에 참석해 조수원 PD를 만난 배우들이 깜짝 방문했다.

간담회 최종 갑작스럽게 문을 연 주인공은 여주인공 우서리 역 신혜선과 남주인공 공우진 역 양세종이었다.

신혜선은 “대본을 보자마자 욕심이 났던 작품이고, 몸을 사리지 않고 연기하고 싶다”며 “보기에는 코믹한 부분이 많은데 진실성 있게 연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연을 맡은 데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지만 연기적으로 어떻게 잘할지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크게 다가온다”며 “전작 ‘황금빛 내 인생’에서 맡았던 캐릭터와 지금 제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많이 달라서 부담이 크다.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세종 씨와 호흡이 정말 좋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양세종 역시 “대본을 보면서 힐링됐다”며 “평소에 고민하던 것들이 치유가 돼서 대본에 집중하게 됐고, 조수원 PD님도 워낙 팬이었다. 재밌게 집중해서 촬영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촬영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즐거운 환경에서 촬영 중”이라며 “휴먼 가족 로맨틱 코미디”라고 작품을 소개했다.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는 열일곱에 불의의 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진 여주인공 우서리가 서른에 깨어나 남주인공 공우진을 만나면서 애뜻하면서도 코믹한 로맨스를 펼치는 내용이다.

연출을 맡은 조수원 PD는 “마냥 가볍지만은 않은 드라마이고, 그러면서 재밌다. 진짜 재밌다”고 밝혔다.

드라마는 열일곱에 불의의 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진 여주인공 우서리가 서른에 깨어나 남주인공 공우진을 만나면서 애뜻하면서도 코믹한 로맨스를 펼치는 내용이다.

시청률 45% 벽을 깬 ‘황금빛 내 인생’으로 스타가 된 신혜선과 ‘라이징 데스’로 꼽히는 양세종이 각각 남녀 주연을 맡아 관심을 끈다.

조 PD는 “요세 캐스팅 상황이 좋지 않은데 저희가 굉장히 운이 좋게 두 분과 함께하게 됐다”며 “특히 혜선 씨는



SBS 새 월화극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기자회견에서 조수원 PD와 주연 배우 신혜선, 양세종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본을 받고 워낙 오랜 시간 준비했지만, 세종 씨는 공을 많이 들었다. 여주인공이 끌고 가는 작품이기 때문에 세종 씨로서는 고민할 지점이 있지 않으나 생각한다. 그 부분을 잘 설득했다”고 말했다.

조 PD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전작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자신했다.

그는 “혜선 씨는 코믹한 장면을 정말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열일곱 서리가 서른에 깨어나면서 ‘멘탈 부조화’에 부딪혀 벌어지는 코믹한 상황들이 굉장히 재밌을 것이다. 세종 씨 역시 망가지면서 재밌게 이야기를 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존 이미지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서 배우들도 꽤 즐기면서 하고 있다. 그런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PD는 또 로맨틱코미디 장르이지만 자신의 전작들처럼 무조건 가볍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너

의 목소리가 들려’ (2013), ‘갑동이’ (2014), ‘너를 사랑한 시간’ (2015) 등 다양한 작품에서 개성 있는 연출을 선보였다. 이번에는 ‘그녀는 예뻤다’ (2015), ‘고교처세왕’ (2014) 등을 쓴 조성희 작가와 손을 잡았다.

그는 “최근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제작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대본이 많이 나와줘야 하는 상황이어서 조성희 작가와 같이 나오지 못했다”며 “다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 드라마는 복잡장르란 것이다. 마냥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정서와 서사와 메시지가 있다. 일반 로코들과 그런 지점에서 차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2부도 재밌지만, 중후반부부터 더 재밌을 것”이라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드라마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23일 오후 10시 첫 방송.

/연합뉴스

책으로 듣는 ‘김광한의 팝스다이얼’

방송가 비하인드 스토리 등 담은 유고 자서전 발간

팝음악 전문 DJ로 인기를 누렸던 김광한의 유고 자서전이 출간됐다.

김광한은 DJ 최동욱과 박원웅 이후 이종환, 김기덕과 함께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그는 ‘김광한의 팝스다이얼’, ‘쇼 비디오 자카’, ‘유머 1번지’, ‘가요 토크 텐’ 등의 DJ와 MC를 맡았다.

그가 2015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2년 후 부인 최경순 씨가 서울 마포구 도화동 사무실에서 우연히 남편의 자서전 유고를 발견했다.

이런 과정으로 출간된 ‘다시 듣는 김광한의 팝스다이얼’ (북레시피)에는 김광한의 어린 시절부터 DJ가 되기까지, 그리고 11년동안 방송을 진행해온 여러 이야기 담겨있어 지난 시절의 음악과 팝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책에는 70-80년대 방송가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그 시대를 추억할 여러 사진도 실렸다.

김광한은 최동욱의 ‘탑툰쇼’를 들으며 DJ를 꿈꿨다. 그는 병아리 장사, 은 단 판매, 보험회사 외판원, 신문 배달을 하면서 DJ의 꿈을 키워나갔다.

“DJ가 되겠다는 생각만 하다 보니 DJ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 DJ와 관계된 말과 행동, 생각만 하게 되어 끝내 DJ가 되고 말았다.”

한편, 김광한 3주기를 맞아 오는 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추모 음악회가 열린다.

이치현, 유현상, 양하영, 김준원 등 후배 가수들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한다.

352쪽, 1만6천원.

/연합뉴스



이동욱·수지, 열애인정 4개월 만에 결별

톱스타 커플이었던 배우 이동욱(37)과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자·24)가 헤어졌다.

양측 소속사는 2일 “각자 스케줄이 바빠 만나기 어렵다 보니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 열애를 인정한 뒤 공개적으로 만남을 이어왔다. 당시 이동욱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이 사석에서 만나 알게 됐고 최근 호감을 느끼고 알아가는 단계라고 한다”고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러시아 3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 (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어영차 바다야	35 덕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 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검법남녀(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장비록 (재)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배틀 트립(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1대 100(재)	00 12 MBC 뉴스 20 2018 FIFA 러시아월드컵 하이라이트 볼터치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30 2018 러시아월드컵 하이라이트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역사저널 그날(재)		30 7가짜 낭만 고향(재)	
[2]	40 저널리즘 토크쇼 J (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류(재)	25 헬로키즈 동물교실(재)	00 뉴스브리핑
[3]	30 UHD 슈퍼 35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하이라이트	0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프리파라 3 50 뽀뽀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여유만만(재) 55 제보자들(재)	20 비밀과 거짓말 (재)	00 테마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뉴스콘서트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영재발굴단 (재)
[7]	00 KBS 뉴스 7 35 6.13 프로젝트 공생	50 인형의 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고품지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1대 100	55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10]	00 시사기획 창 5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16강전, 스웨덴·스위스)	00 너도 인간이니?	00 검법남녀	00 기름진 멜로
[11]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20 두니아-처음 만난 세계 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띠띠뽀 띠띠뽀 1~2(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행복한 교육세상	19:00 미니특공대 X 1~2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다크 오늘	19:30 EBS 뉴스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19:50 극한직업 스페셜(재)
07:30 띠띠뽀 띠띠뽀	13:40 백치미(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맹 유치원1~2	14:30 미니특공대 x	〈하늘길 따라 중국 칭짱열차 2부 하늘을 나는 기차〉
08:30 몬카트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5 파프리카	〈울 만난 여름 2부 즐기길 바래길〉
09:00 뽀뽀뽀 뽀뽀로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1:50 EBS 다크프라이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2	〈생선의 종말 세상을 바꾼 물고기, 대구〉
09:40 메디컬 다크 - 7요일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0:30 한국기행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23:55 백치미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우럭 파리고추찜과 상추 나물〉	16:45 당동맹 유치원1~2	24:45 지식채널e
	17:15 마사와 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3일(음 5월 20일 丙申)

子	36년생 예의 주시하라. 48년생 결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60년생 지근지처에 있는 것들을 살펴본다면 반드시 특이 있다. 72년생 시작 되자마자 곧 종결 되어 버리는 수가 있다. 84년생 보이지 않는 곳에 걸릴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2, 07	午	42년생 방법에 따라서 상황이 판이해질 수 있겠다. 54년생 정신적 휴식이 절실한 때이다. 66년생 두근두근 가슴에 남을 만한 일을 겪으리라. 78년생 지출이 발생하겠지만 장래를 위한 투자로 봐도 무방하다. 90년생 효과를 보지 못하리라. 행운의 숫자 : 83, 52
丑	37년생 정확히 일치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놀랄 것이다. 49년생 보편성을 일탈한다면 후유증을 동반한다. 61년생 견인불발의 자세로 초지일관하라. 73년생 작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 85년생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하다. 행운의 숫자 : 18, 64	未	43년생 모양새를 갖추게 되리라. 55년생 치열하게 고생한 만큼 보람도 느낄 것이리라. 67년생 예상과 일치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애를 먹겠다. 79년생 번갈아 가며 반복되는 형상이로다. 91년생 새는 아무 곳에서나 내려앉지 않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25, 76
寅	38년생 목적을 달성 하리라. 50년생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가능성을 높인다. 62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전환하라. 74년생 북덕이 약하니 기대는 하지 말라. 86년생 평이하고 통상적인 방법이 가장 무난하리라. 행운의 숫자 : 12, 25	申	44년생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56년생 이완시킨 다음에 펼칠 때 오히려 압축 효과가 더 커진다. 68년생 속원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80년생 실수한다면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92년생 드디어 차선책을 택할 때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43, 06
卯	39년생 근본 원인부터 정확히 찾아내야겠다. 51년생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63년생 학수고대 해오던 결과가 도출 될 것이리라. 75년생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87년생 가까운 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빠르다. 행운의 숫자 : 32, 13	酉	45년생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리라. 57년생 유기적인 관계가 설정된 되면서 발전을 열 것이다. 69년생 친화력이 곧 기반의 요체가 될 것이다. 81년생 희망적인 구상을 하는 계기가 조성 될 수 있다. 93년생 긴급히 의논해야 할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97, 93
辰	40년생 공간적 한계를 통감하게 될 것이다. 52년생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불을 보듯 뻔하다. 64년생 필요로 한다면 실제적인 이행이 있어야 한다. 76년생 지난 날 인내하며 지냈던 바에 따른 보람을 느낀다. 88년생 전혀 여지를 두지 말라. 행운의 숫자 : 96, 87	戌	34년생 단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느니라. 46년생 진행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참아야 할 일이 생긴다. 58년생 제대로 처리하라. 70년생 시기를 놓친다면 대비가 불가능하다. 82년생 무의미하다면 빨리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77, 90
巳	41년생 만전을 기하는 것이 옳다. 53년생 시기상조이기 는 하지만 괜찮다. 65년생 겸손하다면 난관을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77년생 중형무진 할 것이니 빠뜨림이 많을 수밖에 없다. 89년생 한 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3, 82	亥	35년생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47년생 동선이 예측 불허하니 어디로 될지 모를 일이다. 59년생 무난하게 진행되면서 안정을 찾게 된다. 71년생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질 수도 있다. 83년생 고통의 끝은 지극히 달콤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8, 8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